

비창 10장 토론의 기술

“대립은 유익한 일이며 서로 다른 것으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생긴다.”- 헤라클레이토스

1. 토론의 정의
2. 토론의 덕목
3. 토론의 과정
4. 토론의 유형
5. 토론의 구성
6. 토론의 평가
7. 토론의 효과
8. 토론의 달인
9. 토론의 실제
10. 토론의 실행

1. 토론의 정의

- ☞ 어원적 의미: 상대를 논(論)리적으로 때림(討) discussion/debate
- ☞ 여럿이 함께 하는 역동적인 논리 게임
- ☞ 상대와의 싸움을 통해 최선의 견해나 방안을 토의·논의·협의함
- ☞ 특정 주제·문제·논점에 대한 의견 교환의 행위 일반
 - 사람들이 제시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제안들과 이해 방식들을 내놓고 그 타당성이나 적실성을 협동적으로 검토하는 대화: monologue→dialogue→syllogue
 - 어떤 특정한 쟁점을 두고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찬반 두 진영으로 편을 나누어 가능하면 어느 쪽이 옳은지를 끝까지 파헤치려고 하는 대립적 대화(debate)
 -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쟁점을 두고 주장을 펼치면서 반론 또는 논박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 ex)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 법정 공방, 각종 학생 토론대회
 - 논쟁은 논증 능력과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유를 위한 강력한 훈련 절차의 하나

2. 토론의 덕목

(1) 도덕적 면

- ①진실성 ☞ 토론 참가자들은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허위를 말하거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 ②자유 ☞ 토론 참가자들은 아무런 내외적 제약 없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 ③평등 ☞ 토론 참가자들은 자신의 의견이든 자신의 이해 관계이든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

④**존중과 배려** ☞ 토론 참가자들은 여타 참가자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 없이 좋은 토론을 형성할 수 없다.

⑤**다원성** ☞ 토론 참가자들은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용인해야 하고 장려해야 한다.

(2) 지적 면

①**합리성** ☞ 토론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선입견, 독단, 편견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와 근거에 따라 반성해야 한다.

②**의견 존중** ☞ 토론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의 의견에 객관적인 이유나 증거가 있고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면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바꿈으로써 타인의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

③**반권위주의** ☞ 토론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의 모든 지식과 신념의 권위가 상호 간의 설득과 동의에 의해서 확보되며 전문가의 권위조차도 회의와 논박의 대상일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

④**일정한 지적 수준** ☞ 토론 참가자들은 다양한 관점들과 제시된 이유 및 근거에 대해 적절한 분별력을 갖추어야 하고 자신의 사고와 주장에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⑤**개방성** ☞ 토론 참가자들은 어떤 문제, 비판, 증거, 관점, 결론도 제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도록 상호 개방적이어야 한다.

3. 토론의 과정

① 입론: 논제나 쟁점에 대해서 자기 측 핵심 주장을 제시.

② 반대 신문 또는 반론: 상대측 입론을 듣고 의문점, 문제점, 신뢰성, 타당성, 건전성 논의.

③ 최종 변론: 입론과 반론, 재입론과 재반론 후, 각 입장의 정당성을 최종적 요약 정리.

④ 판정: 심판관 또는 청중이 심판.

4. 토론의 유형

☞ 토론은 그 성격, 목적, 형식, 참가자 수, 청중의 역할, 진행 방식 등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1) 협의의 토론 유형

①**심포지엄(symposium)**: ‘심포지엄’은 원래 ‘함께 마신다’는 뜻의 그리스 말에서 온 용어로, 음식이나 음료를 먹으면서 어떤 주제에 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던 문화에서 유래한다. 심포지엄은 전문가나 권위자 몇 사람(2~5명)이 동일 주제 또는 관련 주제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것을 핵심으로 하되, 사회자의 정리와 안내로 청중을 포함한 참석자 전체가 다분히 격의 없이 질의 응답하면서 토의하는 형식의 공개 토론회이다. 학술적 토론회는 물론, 신문, 잡지 등에서 특정한 테마를 놓고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를 발표하는 토론회도 이에 포함된다.

②**배심토의(panel discussion)/패널토의**: 특정 문제의 해결이나 해명을 위해 2~8명의 연사(배심원)가 사회자의 주도 아래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전문가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청중은 사회자의 승인을 받아 연사를 지명하여 질문하거나 토의한다. 이러한 청중과의 토론 과정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자기 주장을 정리하고 사회자가 최종적인 결론을 요약한다. 배심토의에서는 사회자가 토론 과정을 잘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③포럼(forum): 원래 고대 로마 시대의 공공집회광장을 뜻하는 말이었다. 오늘날의 포럼도 거기서 행하던 토의 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제시된 한 가지의 주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가진 동일 분야의 전문가(1~2명)가 발표하고 난 후 사회자의 주도하에 청중이 바로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하는 공개 토론회이다. 이른바 시민 광장 같은 것으로서 사회자의 적절한 개입과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자가 의견을 종합한다.

④세미나(seminar): 한 명 이상의 진행자(연구자)의 지도로 고등 연구에 참여한 그룹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전문 연구 활동 또는 학술 발표이다. 사회자의 진행으로 발표자의 발표, 논평자의 논평, 청중의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 한 명의 교수를 중심으로 짜인 학생 연구진들이 행하는 연구 과정이나 활동을 의미한다.

⑤콜로퀴엄(colloquium): 분과(class) 형태의 전문적인 연구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 회의로, 통상 대학원 이상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해당 분과 활동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며 연구 과제의 계획, 수행, 진행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보통은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한다. 세미나보다 형식과 규모 면에서 자유롭고 자그마한 형태이며 학술 단체나 대학에서 많이 활용된다.

⑥원탁토의(round table discussion): 10명 내외의 소규모 참가자들이 원탁이나 회의용 탁자에 둘러 앉아 상좌 하좌 구별 없이 자유롭게 관심사를 나눈다. 보통은 사회자가 없다. 산만해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의장을 둘 수 있다. 좌담회 형태로 많이 활용된다.

⑦인터넷 토론: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새로운 토론 형식이다. 근래에 대표적인 토론 형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인터넷의 토론 전문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체계적인 토론과 댓글달기를 통한 자유로운 토론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 익명적으로 말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⑧논쟁적 토론(debate): 두 개인이나 팀이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대립되는 견해를 갖고 각자 그것을 뒷받침할 논거를 제시하면서 서로 반론과 답변, 입증과 논박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⑨토의형 토론(discussion): 어떤 문제에 대해 엄격한 규칙이나 절차 없이 참석자들이 터놓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⑩문답형 토론(elenchus)/엘렌쿠스: 소크라테스가 상대의 내면을 드러내고 의견의 오류를 밝혀내기 위해 사용한 철학적 문답 형식으로 진행되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⑪집단 토의(group discussion): 소그룹 별로 토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⑫**버즈 토의**(buzz discussion)/윙윙토의: 3~6명 정도의 소그룹이 1팀으로서, 주어진 간단한 문제를 중심으로 즉석에서 토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소규모 집단 토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 토론을 위해 각 소그룹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의견 유도 내지 수렴형 토론 형식. 전체 토론에서 각 그룹 별로 제시한 해결 방안에 기초해서 개량된 해결 방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토론. 토의 소재에 대하여 6명씩 1조를 짜서 각 조가 6분 내에 토론을 마쳐야 한다고 해서 66토의라고도 한다.

⑬**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하기 위한 학습 도구이자 회의 기법. 3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의를 전개하고, 찬반의견 없이 특정 시간동안 제시한 생각들을 모은 다음, 1, 2차 검토를 통해 그 주제에 가장 적합한 생각을 다듬어나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토론.

(2) 광의의 토론 유형

①**회의**(meeting)/모임: 여러 사람이 모여 특정한 의제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장을 정하고 서기를 뽑은 후에 의장 주도로 진행되는 토의이다.

②**컨벤션**(convention): 회의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로서 정보 전달(시장 조사 보고, 신상품 소개, 세부 전략 수립)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기 집회를 주로 지칭한다. 전시회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③**컨퍼런스**(conference):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여러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공통 관심사인 주제를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이란 측면에서 컨벤션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갖지만, 컨벤션에 비해 토론회가 많이 열리며 회의 참가자들에게 토론회 참여 기회도 많이 주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컨벤션은 다수 주제를 다루는 분야 정기 회의에 자주 사용되는 반면, 컨퍼런스는 주로 학문 분야의 새로운 지식 습득 및 특징, 문제점 연구를 위한 전문 회의에 사용된다.

④**콩그레스**(congress): 컨벤션과 같은 의미를 지닌 용어로서 유럽 지역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대회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주로 국제 규모의 회의를 의미한다.

⑤**워크숍**(workshop): ‘워크숍’은 원래 생산이나 수리를 위한 공구와 기계를 제공하는 공간 또는 건물인 ‘일터’나 ‘작업장’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연구협의회를 뜻한다. 어떤 주제에 공통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문가와 함께 집단 연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 방법으로 널리 사용된다. 일련의 강습의 형태로 일정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⑥**청문회**(hearing): 행정 및 입법 기관이 법안의 심의, 행정처분, 소청의 재결 등을 위해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절차이다. 미국 의회에서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1988년 6월 제정, 11월 최초의 청문회가 열렸다.

⑦**공청회**(public hearing): 국회나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행정 기관, 공공 단체 등에서 중

요한 정책의 결정이나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안 심의 이전에 이해 관계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터 공식석상에서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3) 토론의 형식

☞ 도표 참조

토론의 형식

발언 \ 형태	2인 토론		2인 1조						3인 1조	
	A	A-1	A	A-1	B	C-1	C-2	C-3	A	A-1
1	찬성입론8	찬성입론10	찬성입론8	찬성입론8	찬성입론10/10/6	찬성입론6	찬성입론8	찬성입론8/6	찬성입론6	찬성입론6/5/6
2	반대입론8	반대입론15	반대입론8	반대입론8	반대입론10/10/6	반대신문3	반대신문3	반대신문3/5	반대신문3	반대신문3/5/3
3	반대변론6	찬성반론5	반대반론10	찬성입론10	찬성입론10/10/3	반대입론6	반대입론8	반대입론8/6	반대입론6	반대입론7/5/6
4	찬성변론6		찬성반론10	반대입론10	반대입론10/10/3	찬성신문3	찬성신문3	찬성신문3/5	찬성신문3	찬성신문3/5/3
5			반대반론8	반대반론8	찬성입론6/4/4	찬성입론6	찬성입론8	찬성입론8/5	찬성반론5	찬성반론4/5/5
6			찬성반론8	찬성반론8	반대반론6/4/4	반대신문3	반대신문3	반대신문3/5	반대신문3	반대반론6/5/5
7			반대변론6	반대변론6	찬성입론2/2/2	반대입론6	반대입론8	반대입론8/5	반대반론5	(찬성반론3)
8			찬성변론6	찬성변론6	반대반론2/2/2	찬성신문3	찬성신문3	찬성신문3/5	찬성신문3	
9					찬성입론2/2/2	찬성반론4	반대반론4	반대변론4/4	찬성반론5	
10					반대반론2/2/2	반대반론4	찬성반론4	찬성변론4/4	반대반론5	
11						반대반론4	반대반론4			
12						찬성반론4	찬성반론4			
시간	28min	30min	64min	64min	60/56/34min	52min	60min	52/50min	44min	(32)/30/28min
비고	표준기본형	표준기본형	표준응용형	표준응용형	CEDA형	CEDA형	CEDA형	CEDA형	포퍼형	약식포퍼/ (링컨-더글러스)/ 약식세다형

5. 토론의 구성

(1) 입론의 3 조건

입론과 반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지(주장), 논거(근거), 논증의 3요소이다.

- ☞ 논지는 입론의 핵심 주장(결론).
- ☞ 논거는 그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제시된 근거(전제).
- ☞ 논증은 논지가 논거를 지지하는 논리적 구조.

1) 신뢰성 높은 논지를 택하라

☞ 논지는 그 자체로 모순이 없고 사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뢰성이 높아야 한다.

EX) “표결 절차는 위법하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식의 자기모순적 주장

EX) “남성의 폭력적 성향은 생물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식의 논지는 도덕적으로는 물론 사실적으로도 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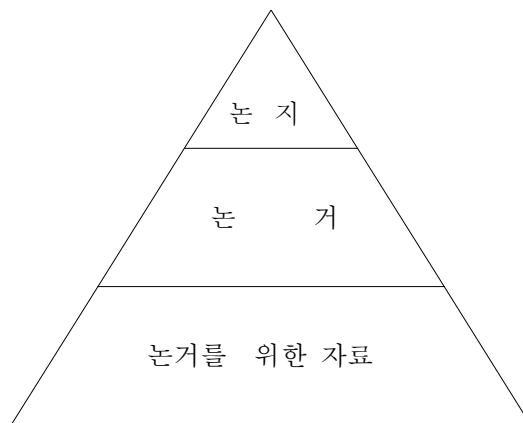
VS.

EX) “죽음도 삶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

EX) “양성평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2) 논거의 신뢰성을 높여라

- ☞ 탄탄한 상식
- ☞ 엄밀한 과학적 증거
- ☞ 논거를 강화시켜주는 설명, 기술, 논증



3) 논지를 충분히 뒷받침하라

- ☞ 연역적으로는 논거가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 것.
- ☞ 귀납적으로는 논거가 논지를 뒷받침하는 논증을 강하게 만들 것.
- ☞ 종합적으로 전체 논거들이 힘을 합쳐 논지를 충분히 뒷받침하게 할 것.
- ☞ 토론의 기술이란 상호 대립하는 의견과 주장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논증을 최대한

건전한 논증으로 구성하고 또 재구성해 나가면서 동시에 상대 논증의 빈틈을 계속적으로 들추어내는 논증력을 역동적으로 구사하는 기량이다.

(2) 반론의 3단계

반론은 상대방의 논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일이다. 각 진영의 입론은 기본적으로 논증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반론에서도 지금까지 익혔던 논증 관련 지식을 총동원해야 한다. 반론 과정을 3단계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미 분석-언어적 차원에서

- ☞ 상대의 논증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주요 개념들의 의미가 명료한지를 따져보는 과정
- ☞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들의 의미가 명료한지를 따져보는 과정
- ☞ 논증과 관련하여 상대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확인하여 잘못된 선입견이나 편견, 그리고 오해 등을 들추어내는 과정 등

(2) 논거 분석-내용적 차원에서

- ☞ 상대가 논증의 전제(논거)로 삼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
- ☞ 충분한 사전 조사를 통해 상대가 내세우는 논거들을 엄격히 검증
- ☞ 상대방의 결론(논지)의 신뢰성을 최대한 의심스럽게 적시

(3) 논증 분석-형식적 차원에서

- ☞ 상대방의 논거들이 논지를 올바르게 뒷받침하는지 검증
- ☞ 상대의 논증이 연역 형식을 취한다면 논거들이 논지를 타당하게 지지하는 구조인지 검증
- ☞ 상대의 논증이 귀납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논거들이 논지를 충분히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지를 검증

6. 토론의 평가

- ☞ 각 측이 얼마나 타당하거나 건전한 입론을 제시했는가?
- ☞ 상대의 신문과 반론으로부터 입론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방어했는가?
- ☞ 상대의 입론을 공격한 것이 얼마나 주효했는가?
- ☞ 어느 측이 입증과 반박의 부담을 덜 졌는가?
- ☞ 핵심 사항에 대한 평가(1, 2, 3항)와 부수 사항에 대한 평가(4, 5항)

◆ 토론 평가 항목과 예시 ◆

◆토론 평가 항목과 예시◆

1. 논지(주장)는 분명한가?	
30점	1)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잘 제시했는가?
	2)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잘 옹호했는가?
	3) 상대의 주장을 충분히 잘 이해했는가?
	4) 상대에 대한 반론 주장은 분명하게 제시했는가?
2. 논거는 타당하고 충분한가?	
30점	1) 자기주장에 대해 타당하고 충분한 논거를 제시했는가?
	2) 상대의 반론을 논박하는 논거들은 충분했는가?
	3) 상대 주장의 논거들은 충분히 잘 이해했는가?
	4) 상대 주장에 대한 논박에는 충분한 논거가 뒷받침됐는가?
3. 용어는 알맞은가?	
20점	1)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했는가?
	2) 어법과 문법에 맞는 품위 있는 용어를 사용했는가?
	3) 토론 내용에 잘 어울리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는가?
	4) 사실 용어와 당위(가치) 용어를 적절하게 사용했는가?
4. 말하기는 적당한가?	
10점	1) 말의 속도는 적절했는가?
	2) 발음은 정확하고 분명했는가?
	3) 고저·장단·완급의 변화가 적절했는가?
	4) 수사학적 구사력을 통해 설득력을 증가시켰는가?
5. 태도는 적절한가?	
10점	1) 시선은 적절했는가?
	2) 손동작과 몸동작은 적절했는가?
	3) 복장과 자세는 자연스러웠는가?
	4) 토론 상대방과 청중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는가?

평가자	학과: ○○학과 학번: ○○○○ 이름: 홍길동			
토론주제	사이버모욕죄 필요한가?	실시일자	20xx년 y월 z일	
토론팀	A		B	
핵심 주장	사이버모욕죄 필요하다.			
주요 논거	사이버모욕죄 필요하지 않다 (법 이전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악플 문화가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 악플이나 공격적인 글은 그 발산 범위나 속도가 엄청나 기존의 법(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효과적인 규제가 불가능하다. • 네티즌의 양식이나 교육을 통한 순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단계이다. • 기존의 여타 매체와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는 별도의 규칙이 필요하다. • 이전 정권 때부터 그 필요성이 요구되어 준비 중이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법(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 • 악플과 순플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 곤란하다(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 • 이제 막 꽃피려고 하는 우리의 IT문화를 꺾어버릴 수 있다. • 문제의 원인은 보다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 		
반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몇몇 전제의 신뢰성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악플의 피해가 구체적 얼마나 심각한가? 기존의 법으로 정말 효과가 없는가? 선도나 교육을 통한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 • 악플의 주요 생산자는 형사법 적용이 안 되는 청소년들인 점을 간과하고 있다. • 전 정권이 준비한 일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이 문제는 전 정권이 잘 했다고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법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지(인터넷의 특성을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지)? • 근본 대책 필요하지만 당장의 피해를 줄일 해결책도 필요하다. • 과도한 표현의 자유는 방종과 무질서를 가져온다. 		
항목별 점수	주장의 명료성(30)	24	주장의 명료성(30)	22
	논거의 타당성(30)	20	논거의 타당성(30)	25
	용어의 적절성(20)	17	용어의 적절성(20)	18
	언변의 적절성(10)	10	언변의 적절성(10)	10
	태도의 적절성(10)	10	태도의 적절성(10)	10
	총점	81	총점	85
총평	상대의 주장에 반대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절충점을 찾는 생산적인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적용과 효과에 논란의 여지가 큰 사이버모욕죄보다 실명제 강화, 자율적 정화 기능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부여 등과 같은 면역요법 식의 해결책을 추구하면 좋겠다. 그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인성 교육과 인터넷 예절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 평가지◆

평가자	학과:	학번:	이름:
토론주제			실시일자
토론팀	A		B
핵심주장 (결론)			
주요논거 (전제)			
비판			
항목별 점수	주장의 명료성(30)		주장의 명료성(30)
	논거의 타당성(30)		논거의 타당성(30)
	용어의 적절성(20)		용어의 적절성(20)
	언변의 적절성(10)		언변의 적절성(10)
	태도의 적절성(10)		태도의 적절성(10)
	총점		총점
총평			

7. 토론의 효과

(1) 고급 논증 구사력 배양

⇒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급 논증술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

(2)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 토론은 가장 체계적이고 엄격한 의사소통 기술이다.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이 의도한 대로 알아듣고 나의 말을 내가 의도한 대로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화법적 기술을 뜻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토론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진다.

(3) 분석적·비판적 사고력 배양

⇒ 토론의 핵심은 상대에 대한 공격과 자신에 대한 방어이다. 그것을 달성하려면 우선 상대방의 말이나 주장을 상대방의 의도에서 파악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 말이 실제로 옳거나 타당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두 측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되면 상대의 말을 분석적·비판적으로 듣는 능력이 배양된다.

(4) 체계적 지식 통합 능력 배양

⇒ 상대방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상대가 나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분석적·비판적 사고력을 넘어서 상대의 논리를 압도할 수 있는 변증적 논증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상대 논리의 허점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이 효과적으로 배양된다.

(5)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신장

⇒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란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나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통해 최종 해결책을 찾아가는 종합적 고등 능력이다. 토론의 변증적·역동적 과정은 그러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6) 민주적 사고방식과 의사결정 능력 향상

⇒ 토론은 정정당당하게 대결을 펼치고 그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올바른 민주적 '경쟁 원칙'을 배울 수 있게 해준다. 토론을 통해 우리는 누구든 틀릴 수 있고 누구도 맞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대가 나의 말을 들어 줄 것을 요구하는 만큼 나도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토론은 민주적 멤버십과 리더십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최고의 민주시민 교육법이다.

(7) 적극적인 태도 형성

⇒ 토론은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조리 있게 발표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논제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능력은 삶과 세상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최종적으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 나아가서 상황 대처 능력을 길러준다.

8. 토론의 달인

(1) 논증적 사고법에 숙달되기

⇒ 토론에 활용되는 능력은 입론과 반론의 역동적 과정을 통해 점차 더 나은 견해로 나아가는 변증적 사고력이다. 변증적 사고의 기초는 논증적 사고이다. 따라서 논증적 사고의 기본기에 충실함에 따라 토론력도 증대된다.

(2) 주의 깊게 경청하기

⇒좋은 토론자는 자기가 말하는 내용에 못지않게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상대 주장의 핵심을 빨리 간파하면 반론의 실마리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3) 충분한 자료와 예시 준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주제를 장악해야 한다. 예시를 많이 준비하는 것도 좋다. 자료와 예시는 논거들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4) 반박 논리 예측하기

⇒전략적 토론은 마치 장기나 바둑 게임과 같다. 토론의 달인은 세 수, 네 수 앞을 내다본다. 상대가 어떤 주장을 펴고 어떤 근거를 제시할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5) 명확히 정의된 단어 사용하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할 때에는 사용하는 주요 용어와 어휘의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미리 잘 정의해 두었다가 질의와 신문이 주어질 때 언제라도 대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다. 역으로, 상대의 애매모호한 용어 사용을 잘 식별해 내면 반론의 좋은 실마리를 얻게 된다.

(6) 철저한 감정 통제

⇒감정에 휩싸이면 곧장 패배한다. 격양된 분위기에서 감정이 섞인 언어를 절대 사용하지 말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어로써 차분히 이야기해야 한다.

(7) 상대 처지 되어보기

⇒상대의 처지가 되어 토론하는 연습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 실제 토론 대회에서는 찬성측과 반대측을 주제를 통해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하자.

(8) 분명한 오류 솔직히 인정하기

⇒자신의 오류가 명백해졌는데도 그것에 연연하고 중언부언하면 토론자의 자신감은 상실되고 주장과 논거들은 지리멸렬하게 된다. 명백한 오류는 솔직히 시인하고 다음 단계로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9) 타이밍과 집중에 주목하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옹호든 상대 입장에 대한 반론이든 적소에서 적시에 해야 한다. 한참 지난 논점에 관해 이야기 한다든지 너무 앞서서 논의를 진행하면 적중하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또한 동문서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핵심 논점에 최대한 가까운 지식과 정보와 논리로 승부해야 한다.

(10) 목소리와 태도에 유의하기

⇒말에 높낮이가 있어야 집중하기가 쉽다. 적당한 제스처를 취하고 속도와 강약을 조절한다. 토론에 완승을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시선은 상대의 입과 눈 사이쯤에, 표정은 부드럽고 여유 있게! 상대에 대한 인격적 존중은 기본이고, 충분한 사전 연습, 순간적인 재치와 순발력, 여유 있는 자세 등은 필수이다.

(11) 금기 사항 준수하기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서론을 지루하게 늘어놓지 않는다. 질문인지 주장인지를 알지 못하게 말한다. 감정적 언어나 저급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에 화를 내거나 조롱투로 말한다.

9. 토론의 실제

(1) 5단계 시나리오 작성

- ☞ 논쟁으로서의 토론은 일종의 싸움이므로 선제공격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
- ☞ 상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공격받을 때는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사전 수립.
- ☞ 면밀한 준비, 시나리오 작성, 예행연습(리허설) 등을 실천.
- ☞ 모의 토론 시연을 추천.

- ① 목적: 무엇 때문에 논의를 하는가?
- ② 목표: 이 논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얻어낼 것인가?
- ③ 진행 절차: 목표 달성을 위한 전체의 대체적 줄거리는?
- ④ 논증 순서: 각 단계에서 구체적인 의사교환의 줄거리는?
- ⑤ 상황 대응 계획: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대응책은?

EX) 인간복제 허용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인다고 가정하고, 찬성측 입장에서 각 단계 별로 구성한 시나리오.

- ①목적: 인간복제 허용의 당위성 입증(을 통해 복제가 가능한 세상 실현)
- ②목표: 인간복제 허용 찬성측 주장의 우위를 확실히 보여줌
- ③진행 절차:
 - ▲입론을 통해 인간복제가 허용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이유를 분명히 제시한다.
 - ▲반대측의 입론에 대한 꼼꼼한 심문을 통해 문제점을 명백히 드러낸다.
 - ▲반대측의 심문에 적절히 대응하여 찬성측 입론을 잘 지켜낸다.
 - ▲필요하면 찬성측 입론을 수정·보완하여 강화한다.
- ④논증 순서: 입론과 반론의 중요한 곳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주장을 타당하게 전개한다.
 - ▲ 인간복제의 기술적 불완전성은 쉽게 극복될 수 있다,
 - ▲ 인간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강화시켜준다.
 - ▲ 인간복제는 개인과 사회에 적잖은 이익을 준다.
 - ▲ 예상되는 문제점은 과학기술 발전과 보완 입법으로 예방 가능하다.
- ⑤상황 대응 계획:
 - ▲ 기술적 불완전성에 관한 반론은 기술 과학기술의 신속한 진보가 제공하는 잠재적 위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 ▲ 복제인간의 존엄성 훼손에 입각한 반론은 시험관 아기와 쌍둥이 관련 연구를 제시하여 대응한다.
 - ▲ 인척 관계 혼란에 입각한 반론은 인척 관계가 혈연적이라기보다는 관습적·사회적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한다.
 - ▲ 우생학적 악용 가능성에 입각한 반론은 법·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 ▲ 유전자 풀의 다양성 훼손 문제는 생물학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기우(杞憂)라는 점을 지적한다.

10. 토론의 실행

【문제1】 적극적 안락사 허용 또는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벌인다고 하자. 논제를 선택하고 자신이 취할 입장을 5단계 시나리오에 따라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해 보자. (안락사에 관해서는 영화 <시 인사이드 The Sea Inside, 2004>, 사형제도에 관해서는 <데드 맨 워킹 Deadman Walkng, 1995; 그린 마일, The Green Mile 1999>를 참고할 것)

【문제2】 엠비시(MBC) ‘100분토론’에 근래 통해 방송되었던 다음 7(+a)개의 토론 프로그램 중 하나를 택하여 대립되는 두 입장을 간명하게 드러내고 그 각각을 평가해 보자. 토론 장면을 시청할 때 틈틈이 중요 사항을 메모해야 한다. 평가는 예시된 토론 평가지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면 된다.

* 접속 요령 www.imbc.com→시사교양 프로그램 클릭→100분토론 클릭→다시보기 클릭→토론 제목 선택.

- ▲ 262회: 종교인 과세 논란 (2008년 1월 31일 방송)
- ▲ 371회: 친일논쟁! 역사 복원인가 자해 행위인가 (2008년 8월 5일 방송)
- ▲ 389회: 중부세 완화 적절한가? (2008년 9월 21일 방송)
- ▲ 402회: 미네르바 구속 파문 (2009년 1월 15일 방송)
- ▲ 416회: 미네르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 (2009년 4월 23일 방송)
- ▲ 420회: 존엄사, 자기 권리인가 생명 경시인가 (2009년 5월 21일 방송)
- ▲ 439회: 군 가산점제 부활 논란 (2009년 10월 15일 방송)
- ▲ a 회: ...

【문제3】 토론 주제를 신청 받아 정한 후 사회자 및 토론 찬반팀을 구성하여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평가하는 과제.

- ▲ 4대강 정비 사업
- ▲ 한진 중공업 사태
- ▲ 한미 FTA 비준 문제
- ▲ 반값 등록금 논쟁
- ▲ 기부 입학제 논란
- ▲ 자유민주주의 용어 사용 찬반 입장
- ▲ 무상 급식 시행 논쟁
- ▲ 미국 건강보험개혁 논쟁